

편집 및 발행인 : 김종덕 발행처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

감수 : 이언경 담당자 : 권보배 전화번호 : 051-797-4774 E-mail : eklee@kmi.re.kr / b2kwon@kmi.re.kr

Contents

● 국제물류 통계

- '23년 글로벌 특송 및 소화물 시장, 전년 대비 2.2% 성장 전망

●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

- 시스펜, 현대글로벌스와 협력해 자동차 운송 시장 진출
- APM 터미널·DP World, ZEPA 결성

● 미주·중남미 물류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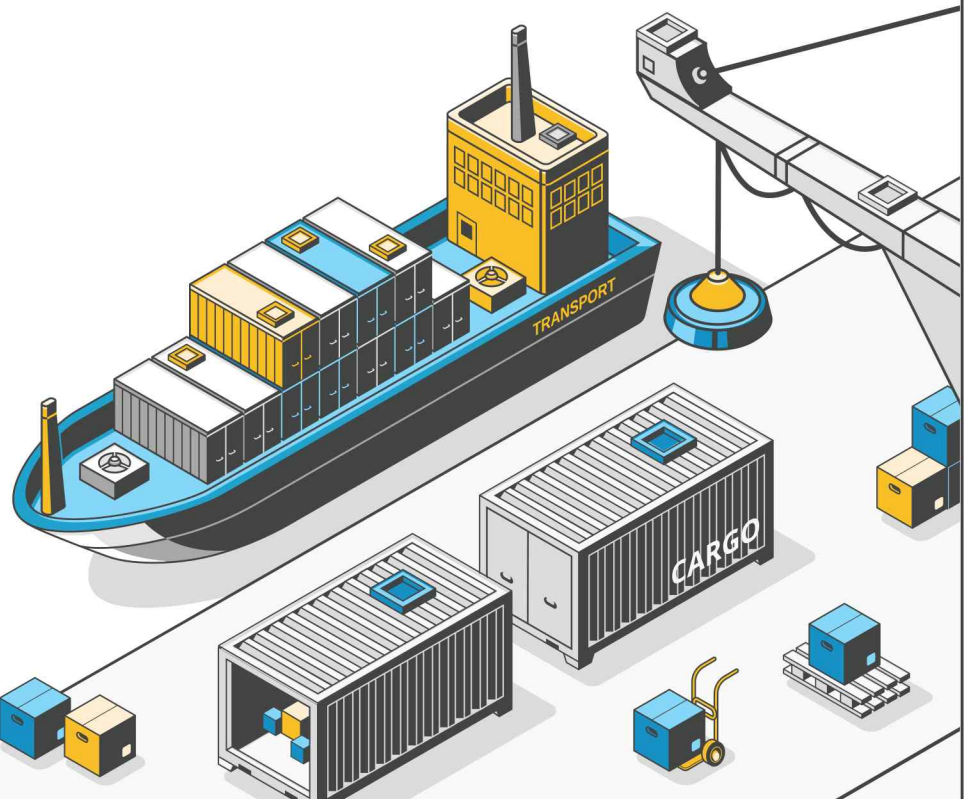
- CMA CGM·MSC, 파나마운하할증료(PAF) 부과 예고

● 유럽 물류시장 동향

- 루프트한자 카고, 프랑크푸르트 공항 화물 센터 신축 개시

● 공지사항

- “국제물류 정보포탈”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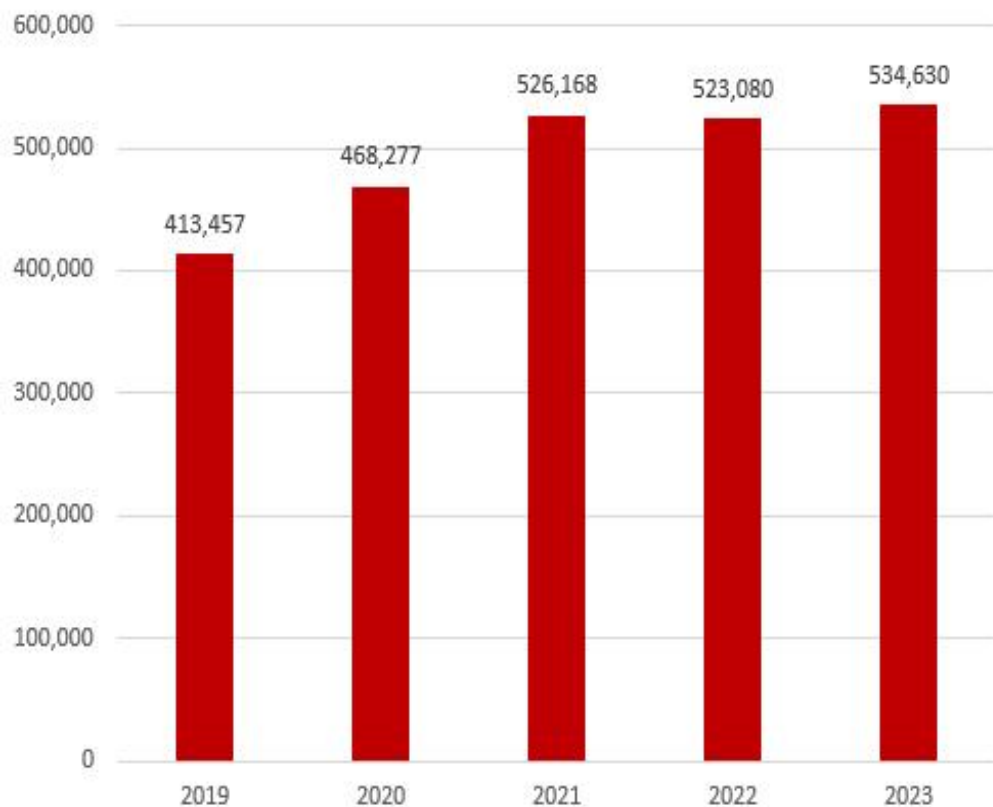
'23년 글로벌 특송 및 소화물 시장, 전년 대비 2.2% 성장 전망

▶ 글로벌 특송 및 소화물 시장은 지난해 역성장을 보였으나 올해는 소폭 성장세를 보이며 2021년도 시장 규모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

- Transport Intelligence 전망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올해 글로벌 특송 및 소화물 시장 규모는 약 5,346억 3,060만 유로로 지난해 5,230억 8,060만 유로 대비 약 2.2%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
- 이는 코로나 직후 2021년 5,261억 6,800만 유로로 최대 시장 규모를 보인 후 지난해 -0.6%의 역성장을 보였으나 올해 다시 플러스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됨
- 하지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평균 10% 이상 성장률에는 크게 못 미침

글로벌 특송 및 소화물 시장 규모(2019-2022년, 2023년(전망))

(단위 : 백만 유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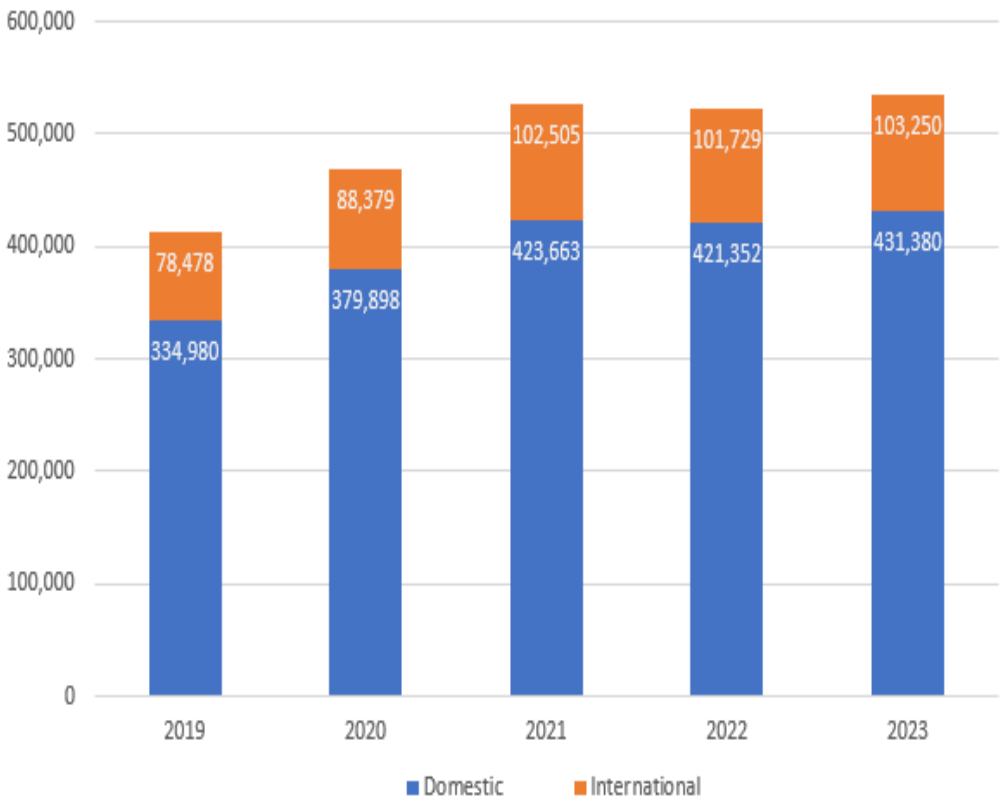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www.gscintell.com(검색일 : 2023.12.5.)

- ▶ 글로벌 특송 및 소화물 시장을 내수 및 국제 부문으로 구분해 보면 전년 대비 내수 부문의 성장률이 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
 - 올해 글로벌 특송 및 소화물 시장의 내수 부문 규모는 약 4,313억 8,030만 유로로 지난해 4,213억 5,200만 유로 대비 약 2.4%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
 - 반면, 올해 국제 부문의 경우에는 약 1,032억 5,030만 유로로 전망되어 지난해 1,017억 2,860만 유로 대비 약 1.5% 성장할 전망임

내수/국제 부문별 글로벌 특송 및 소화물 시장 규모(2019-2022년, 2023년(전망))

(단위 : 백만 유로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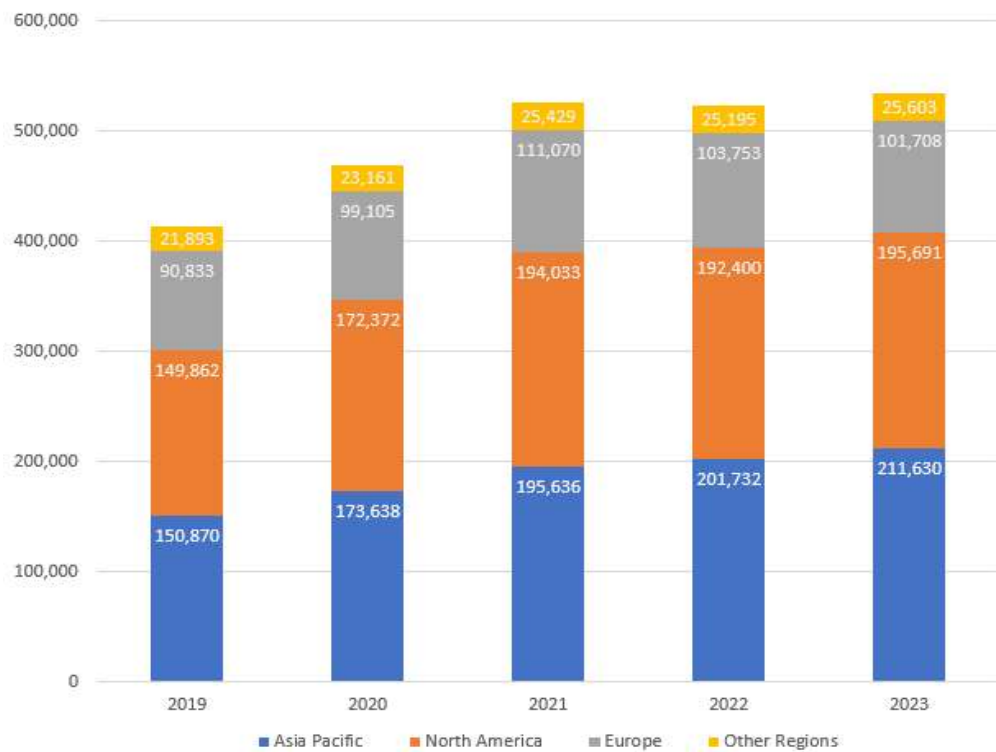
자료 : www.gscintell.com(검색일 : 2023.12.5.)

● 글로벌 특송 및 소화물 시장을 주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년 대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됨

-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글로벌 특송 및 소화물 시장 규모는 약 2,116억 2,980만 유로로 지난해 2,017억 3,190만 유로 대비 약 4.9% 성장해 시장 평균 상승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
- 그 뒤를 이어 북미 지역이 올해 1,956억 9,070만 유로로 전년(1,924억 10만 유로) 대비 약 1.7%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
- 반면, 유럽 지역의 글로벌 특송 및 소화물 시장 규모는 올해 1,017억 760만 유로로 전년(1,037억 5,320만 유로) 대비 약 - 2%의 역성장이 예상됨
- 이는 지난해 약 6.6%의 역성장에 이어 2년 연속 역성장세를 보이는 것임

주요 지역별 글로벌 특송 및 소화물 시장 규모(2019-2022년, 2023년(전망))

(단위 : 백만 유로)



자료 : www.gscintell.com(검색일 : 2023.12.5.)

참고자료 : www.gscintell.com(검색일 : 2023.12.5.)

시스펜, 현대글로벌비스와 협력해 자동차 운송 시장 진출

- ▶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임대 해운사인 시스펜이 현대글로벌비스와 협력해 자동차 운송 시장에 진출함

 - 글로벌 자산관리사 아틀라스(Atlas) 자회사인 시스펜과 현대 글로벌비스는 상하이 와이가오차오 조선소에 자동차전용선(PCTC) 10,800 CEU(자동차 등가 단위) 급 10척의 건조계약을 체결함
 - 그 중 액화천연가스 이중 연료 추진엔진 6척이 포함되어 있으며, 암모니아 메탄올을 연료로 하는 선박도 포함되어 있음
- ▶ 시스펜은 140척의 컨테이너선을 보유하고 있으며, 신조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50척을 발주했으며, 그중 25척이 이중 연료 선박임

 - 발주한 선박 중 LNG 연료 선박 외 메탄올과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도 포함됨

Marintec China에서 Seaspan 및 현대글로벌비스와 CSSC 계약 체결



자료 : www.seatrade-maritime.com(검색일 : 2023.12.6.)

- 올해 초 현대글로비스는 2027년 인도를 목표로 LNG 이중연료 10,800CEU 선박 12척에 약 18억 4천만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힘

 -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몇 년간 비현대 고객전략으로 폭스바겐, 포드, BMW 등의 비현대 고객 확보를 통해 지난해 비현대 고객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약 60%를 차지함
- 코로나-19 이후 중국의 전기차 무역 성장, 차량용 반도체 수급 회복 등으로 자동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운반선 부족과 운임 상승으로 자동차 운송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

 - 자동차 운반선은 2019년 777척에서 코로나-19시기 노후 선박 폐기 및 신조선 발주 부진으로 2021년에 749척으로 감소함
 - 대규모로 공급되는 2024년부터 시작해 2025년이 돼야 수급균형이 조정될 것으로 보임

APM 터미널·DP World, ZEPA 결성

- APM 터미널과 DP World가 항만의 배출가스 제로를 위한 Zero Emission Port Alliance(ZEPA)를 결성함
 - APM 터미널과 DP World는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협약 28차 당사국 총회에서 항만에서 사용되는 컨테이너 이동 장비의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ZEPA를 결성했다고 밝힘
- ZEPA는 내년 초 활동을 시작할 예정임
 - 터미널 운영업체, OEM, 항만 당국, 정부 기관 등 모든 항만 업계 당사자는 ZEPA에 합류할 수 있다고 밝힘
 - ZEPA의 주요 목표는 배터리 전기 컨테이너 취급 장비의 채택을 늘리고 항만에서의 CO2 추가 배출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함

APM 터미널과 DP World ZEPA 연합 출범



자료 : www.offshore-energy.biz(검색일 : 2023.12.6.)

참고자료 : www.seatrade-maritime.com, www.offshore-energy.biz(검색일 : 2023.12.6..)

CMA CGM·MSC, 파나마운하할증료(PAF) 부과 예고

- 12월 1일자로 파나마운하 통항척수가 20척로 제한되면서, 선사들의 운영비용 및 운송기간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

 - 파나마운하 관리청은 카툰호수의 수심 감소 심화에 따라 최대 1일 통항척수를 내년 1월1일부터 최대 20척, 2월 1일부터 18척으로 제한할 것이라 발표함
 - 올해 2분기부터 파나마운하 통항 선박의 최대 흘수 또한 14.91m에서 13.41m로 낮아졌으며, 운하를 통과하는 Neo-Panamax 선박의 선적량 또한 최대 1,500TEU 감소했음
- 파나마운하 통항제한에 따른 컨테이너 운송시장 영향에 대한 업계 견해는 다양함

 - Xavier Destriau Zim CFO는 이러한 흘수제한이 정기선 서비스의 일정을 지연시키고, 고객들에게 신뢰성을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피력함
 - Zim은 정기선 시장 내 선박 공급과잉을 다소 해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으나 일부에서는 모멘텀을 전환할만큼 정기선 서비스 둔화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함
-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일부 정기선사들은 파나마운하할증료(Panama Adjustment Factor)를 부과할 예정임

 - 운하 운항제한에 대한 대안조치 모색에 소극적이었던 정기선사들은 점차 악화 중인 파나마운하 운송 환경에 따라 운항 척수 제한 및 높은 운하통항료에 따른 할증료(Surcharge)을 부과할 예정임
 - CMA CGM은 2024년 1월1일부터 PAF로 TEU당 150달러를 부과할 것이라 발표함
 - MSC의 경우, 12월 15일부터 운하를 통과하는 아시아-미국동부/걸프, 아시아-카리브해 서비스에 대해 TEU당 297달러의 PAF를 부과할 예정임
 - Rolf Habben Jansen Hapag-Lloyd CEO 또한 파나마운하를 통항하는 서비스 노선의 재편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함

정기선사 PAF 부과 예고


 자료 : www.cma-cgm.com(검색일 : 2023.12.6.)

- 파나마운하 통항제한에 따른 운송료 부담이 가시화됨에 따라 향후 파나마운하를 이용하는 화주들의 비용 및 운송기간 증가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

루프트한자 카고, 프랑크푸르트 공항 화물 센터 신축 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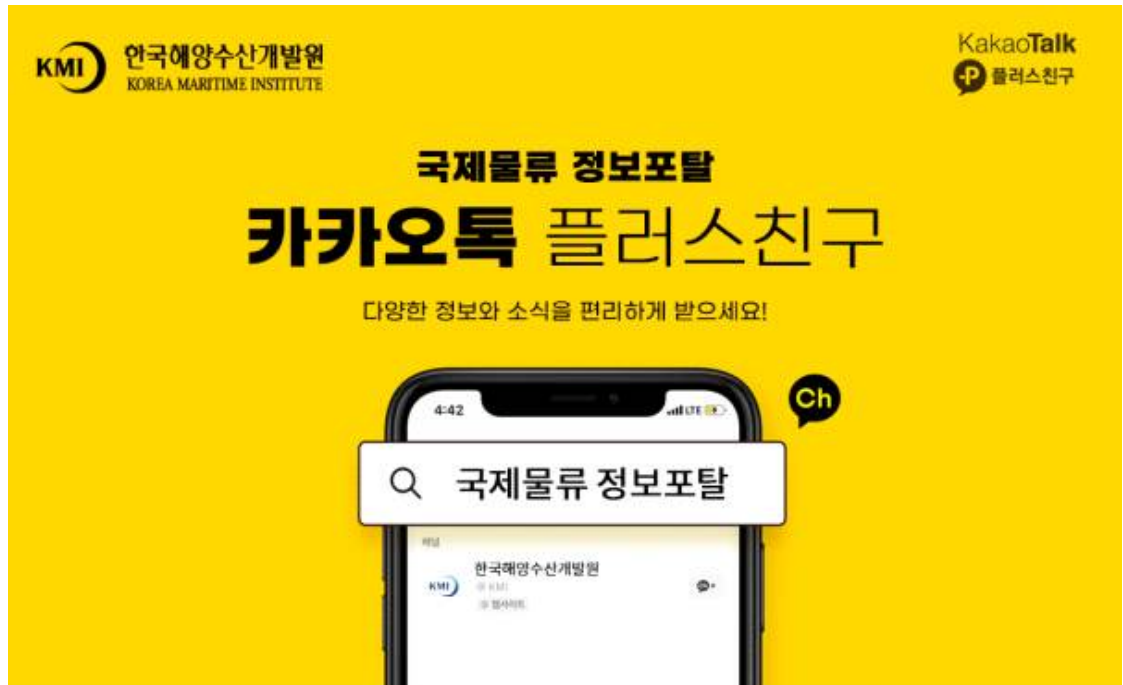
- 최근 글로벌 항공 화물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고 있음
- 독일 루프트한자 카고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새로운 화물 처리 시설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발표함
 - 지난 8월 루프트한자는 새로운 자동화 운송 시스템이 지원되는 40미터 높이의 고층입체창고(high bay warehouse) 구축 작업에 들어감
 - 이 새로운 화물 센터는 5억 유로가 소요되고 7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달하며 2030년까지 완공되어 기존의 화물 센터를 완전히 대체할 예정임
 - 기존의 화물 센터가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하기도 하지만, 새로운 화물 센터는 보관 능력 확장과 설비 능력 향상을 위한 대규모 투자로 볼 수 있음
- 프랑크푸르트는 주요 허브 공항으로, 루프트한자 화물의 80%가 프랑크푸르트 허브를 경유함에 따라 루프트한자 카고의 운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충지로 볼 수 있음
- 새로운 화물 센터를 구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항공 화물 시장의 변화로 볼 수 있음
 - 특히 전자 상거래는 팬데믹 기간 동안 보였던 호황이 대부분의 시장에서 일부 침체되면서 물량 증가에 대한 영향이 불분명해지긴 했지만 시장의 구조에 변화를 줌
 - 루프트한자는 라이프치히에 자체적으로 대규모 허브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DHL 익스프레스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전자 상거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상당한 시설능력을 제공하고 있으며, 이는 특히 유럽-중국 노선에서 큰 이점을 보임
- 이유가 무엇이든, 지난 3년간 루프트한자가 겪은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5억 유로를 기꺼이 투자하겠다는 것은 항공 화물 사업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반영할 것이라 볼 수 있음

루프트한자 카고 프랑크푸르트 공항 화물 센터



자료 : <https://commons.wikimedia.org>(검색일 : 2023.12.5.)

『국제물류 정보포탈』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



친구 추가 방법

1. 카카오톡 메인화면
상단 친구 검색



2. 『국제물류 정보포탈』
검색



3. 친구추가 버튼

